

투데이

광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1년

앱·CG업체 입주·투자 줄었다

(컴퓨터 그래픽)

문화전당권·kdb생명빌딩 등 4곳에 39만㎡

광주시 150억 규모 펀드 조성 기업 투자키로

광주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은 지 1년을 맞았다. 문화산업 진흥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주 투자진흥지구에는 문화산업체의 입주 및 투자유치가 잇따르면서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남구 CGI센터와 동구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서구 kdb생명빌딩 등 4개소 39만1320㎡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는 영화 '해운대'와 '태왕사신기' 등의 후반작업을 맡았던 ㈜모픽을 포함, 모두 45개 업체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CG업계 1, 2위를 다투는 ㈜모픽과 ㈜디지탈아이디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CGI센터 건립 등 광주의 문화산업 지원 시책을 계기로 광주에 동지를 틀고 국내 최고 3D 블록버스터인 '7광구'와 '라', '고지전' 등 올해 개봉한 영화의 특수효과와 3D 컨버팅 제작에 참여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공정을 약 97%로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송하동 CGI센터는 이날 중 공모를 통해 입주기업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지원을 선정하고 내년 1~2월까지 첨단 영상 제작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면 약 400~5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앱(App)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문화전당권역에 구축한 광주 스마트모바일업개발지원센터(GSMAC)에는 개발팀들이 100% 입주, 모두 43건의 앱(App)을 개발했으며 현재 10개사가 창업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MAC는 올해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앱 개발 테스트베드(Test bed)' 공모사업에

당선됐으며, 내년에는 테스트 기기를 확대 구축하고 앱 개발 중소기업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기업유치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기업이 원하는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펀드를 조성, 광주로 이전하거나 광주 지역 기업이 제작한 유망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어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에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F1 중계권료 안내고 개최권료 할증 없앤다

전남도-FOM 의견 접근...정부 지원여부가 관건

전남도가 F1대회 주관운영사인 FOM(Fomula One Management)과의 제협상에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중계권료(내년 대회 기준 1390만달러)를 내지 않고, 해마다 10%씩 오르게 돼 있는 개최권료의 할증을 없애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적자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F1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적자 사업에 대한 국가의 원조성 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와 FOM은 일단, 내년도 대회부터 매년 지급해야 하는 TV 중계권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TV 중계권료는 지난 2010년 첫 대회 때 1150만 달러(한화 기준 147억)를 지급했고 지난해 1270만달러(148억)를 지급하는 등 매년 10%씩 오르게 돼 있지만, 국내 방송사에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15~30억원에 판매 제협상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꼽혀왔다.

개최권료도 2013년 대회부터 할증(10%)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최권료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대회(3610만달러·381억)를 시작으로 2011년 3970만 달러(484억), 2012년 4370만 달러(환율 1146원 기준 500억8000만) 등 매년 10%씩 증액하도록 돼 있지만 2013년 대회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최권료의 경우 전남도는 할증 제외 방안 이외에도 매년 3000

만 달러로 낮추는 안을 요구하는 반면, FOM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가진 대회 개최권을 전남도로 이전하는 것도 협상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백억대 적자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598억원의 적자를 낸 대회에서 TV중계권료(148억원)를 내지 않더라도 450억원의 적자는 남는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회 개최를 안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하게 일면서 F1조직위원회가 올린 내년도 대회 운영비(150억) 중 필수 경비(15억)를 제외한 135억원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삭감 내년예산 203억 올 정리추경으로?

의회 역대 최대액 삭감 확정  
추경안 82억 '편법' 논란  
빛고을타운원장 항의 시위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인 203억 원 삭감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11월 열리는 올해 정리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협의될 예정이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방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광주시 내년도 예산 3조2040억 7000만 원 중 의회 개원 이래 사상 최대인 203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광주시 교육청 예산 40억2000만원도 삭감 의결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7개 사업을 올해 정리 추경안에 곧바로 상정기로 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사전 조율을 통해 강운태 시장이 일부 의사진행 방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는 일부 사업을 추경에 반영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우회적으로 시의회에 예산안 심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뒤 "예산 심의 과

정에서 일부 의사진행을 방해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회의 의사진행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받아서 안 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이어 "2011년도 제2회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7건 82억 원은 정리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선거(민주·북구 1)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정치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안을 깊이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내년도 삭감 예산이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 예산을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편법인데다,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2011년도 정리 추경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03억 원이 삭감, 의결된 가운데 강운태 시장이 예산안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무거운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에 반영을 요구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자지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빛고을노인건강복지재단 이한일 원장은 9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장직을 사퇴했다. /최권일기자 cki@

"F1 예산심의 거부는 쇼" 파문

이정민 도의원 "집행부 요청"...상임위원장 일부 시인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지난 7일 F1(포뮬러원) 대회 예산안 심사 거부는 집행부 요청에 의한 '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정민(보성·민노)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거부는 몇몇 의원들이 짠 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치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F1 조직위원회 출연금 150여원을 포함한 712억 원 규모의 도 투자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거부도 의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하지 않았다. 집행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짜고치는 고스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F1 대회 일정을 결정하는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

가 열리는 만큼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집행부가 심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해 연기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꼼꼼한 예산 심사가 아닌,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곰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은 "F1 대회 예산안 심사 거부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데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요청한 것은 심사 연기 요청이 아닌, F1 대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시기를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 일정이 끝난 뒤로 늦춰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대통령 실장에 하금열·고용복지수석 노연홍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신임 대통령 실장에 하금열(62·사진) SBS 상임고문을 내정했다.

또 고용복지수석에 노연홍(5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수석급인 총무기획관에는 장다사(54)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에는 이동우(57)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을 각각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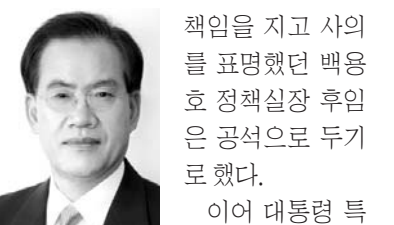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날 최금락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기획관 산하에 신설되는 총무1비서관에는 김오진(45)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총무2비서관에는 계승환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표했다.

아울러 외신대변인에는 이미연(43)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

을 내정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백용호 정책실장 후임은 공식으로 두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 특보 중에서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유인준 문화특보, 김영순 여성특보 등 5명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12일 신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경매특자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광주 최고의 입지!
권리금 없는 마지막 남은
총장으로 황금상권
입 대!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토지면적 2247㎡ (680평)
지하 1256㎡ (380평)
문의 1661-3232 |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경침 겸용 운동봉(주목용) 30,000원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동협: 601154-52-335334 서영선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복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원리 환리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시세-80%+α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